

# 조선시대에 간행된 「中庸」의 諸板本에 관한 研究

A Study on Printed Books of *Zhongyong* in the Choseon Dynasty

안 현 주 (Hyeonju Ahn)\*

## ◁ 목 차 ▷

- |                     |                     |
|---------------------|---------------------|
| 1. 緒 論              | 4. 漢文本 「中庸」 諸板本の 系統 |
| 2. 漢文本 「中庸」 諸板本の 調査 | 5. 結 論              |
| 3. 漢文本 「中庸」 諸板本の 分析 | <참고문헌>              |

## < 초 록 >

이 연구는 조선시대에 간행되었던 「四書」의 하나인 漢文本 「中庸」 諸板本에 관한 형태 서지적 분석이다. 국내 여러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漢文本 「中庸」 판본을 조사하여, 그 형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漢文本 「中庸」 판본 중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었던 「中庸章句大全」의 계통별 체계화를 시도하였다.

연구결과, 漢文本 「中庸」은 중앙관서와 慶尙嶺營에서 주로 간행하였고, 시기적으로는 17~19세기에 가장 많이 간행되었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中庸章句大全」의 경우 명나라 胡廣 등이 편찬한 「四書五經大全」을 저본으로 하여 이를 복각한 목판본은 ‘明本覆刻系列’과 조선에서 주조한 활자로 간행한 활자본 중 ‘丁酉字系列’로 판본의 계통이 형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要語 : 中庸章句大全, 明本覆刻本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 (greenbird@hanmail.net)

접수일: 2005년 11월 27일 최초심사일: 2005년 11월 29일 심사완료일: 2005년 12월 17일

<ABSTRACT>

This paper is a bibliographic analysis on printed books of *Zhongyong* in Chosun Dynasty. Through examination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books in many institutes and private collections, *Zhongyongzhanggoudaiquan*(中庸章句大全) was systematically explored, which was the most frequently published *Zhongyong* (中庸) in Chosun Dynasty.

The chinese charactered book(漢文本) *Zhongyong*(中庸) was published mainly in Kyungki and Kyungsang provinces, and in the period of 17C to 19C. There are two streams of *Zhongyongzhanggoudaiquan*. One is the series of the reprinted edition of *Myungbon*(明本覆刻), originated from *Saseookyungdaejun*(四書五經大全), compiled by Hokwang(湖廣) and colleagues in Myung(明). The second is the series of *Chungyuja* books(丁酉字本) among movable type books of Chosun(朝鮮活字本), the contents of which being the same as the other stream.

Key words : *Zhongyongzhanggoudaiquan*(中庸章句大全), the reprinted edition of *Myungbon*(明本覆刻本)



## 1. 緒 論

조선은 유학, 즉 주희(朱熹)의 성리학의 근본원리를 통치이념으로 삼은 나라이다. 그리하여 조선조에는 유학을 교육 및 관료등용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유학과 관련된 많은 경적(經籍)이 간행 유통되었다. 특히 사서(四書)는 성리학의 기본 경전이었으므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 주석 및 도해(圖解)작업이 이루어져 활자본과 목판본의 형태로 중앙관서는 물론 지방관서, 서원, 그리고 조선후기에는 민간출판업자에 의해서까지 끊임없이 간행되었던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필자는 선행의 論語와 大學의 諸板本에 관한 연구<sup>1)</sup>에 이어 조선시대에 간행된 한문본 「中庸」의 판본을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비록 「中庸」 판본의 전래와 수용 등에 관해서는 연구되어졌지만, 조선시대에 간행 유통된 「中庸」 판본에 관한 체계적인 고찰은 현재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한문본 「中庸」 판본만을 대상으로 각종의 책판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문헌기록을 조사하고, 여러 기관 및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현존본 실물들을 조사하여 <中庸書目>을 작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中庸」 판본은 조선시대에 간행된 것들로, 그 구체적인 시기는 세종(世宗) 때에 명나라에서 수입되어 처음으로 「中庸章句大全」이 간행된 1428년부터 1910년대까지이다. 그리고 판종(板種)별로는 필사본을 제외한 활자본과 목판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활자본의 범위는 조선시대에 주조한 활자로 찍은 것들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선후기에 서양에서 들어온 인쇄기로 찍은 신식활자본(新式活字本)은 이 연구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中庸」의 전문(全文)을 담고 있으면서, 주로 교재용으로 유통된 판본만을 그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1) 안현주, “朝鮮時代に 刊行된 한문본 論語의 板本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24집 (2002).

안현주, “朝鮮時代に 刊行된 언해본 論語의 板本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26집 (2003).

송일기·안현주, “朝鮮時代に 刊行된 한문본 大學의 諸板本에 관한 研究,” 『한국 도서관·정보학회지』 제36권, 제2호 (2005).

그런데 한문본 「中庸」은 大學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단권(不分卷一冊)으로 간행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sup>2)</sup> 즉, 낙질(落帙)이 존재할 수 없어 비교적 정확한 간행연도 추정이 용이하고, 간기(刊記)나 내사기(內賜記)를 가지고 있는 판본의 간행연도를 밝히게 되면, 이를 근거로 간기가 확실치 않은 論語와 孟子의 판본들의 간년추정 및 판본들간의 선후관계를 살피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되는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실물조사를 통해서 작성된 <中庸書目>을 바탕으로 조선 시대에 간행되어 현존하는 한문본 「中庸」 판본의 전체적인 현황과 간행시기 및 간행지역을 파악하고, 계통별 분석을 통하여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漢文本 「中庸」 諸板本の 調査

### 2.1 冊板目錄상의 「中庸」 板本

먼저 책판목록의 기록을 통해서, 중앙관서와 지방에서 소장하고 있던 한문본 「中庸」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선시대에 작성된 많은 책판목록들 가운데 비교적 작성시기가 분명한 것들을 선정하여<sup>3)</sup> 여기에 기록된 「中庸」 판본들을 정리하고 이를 지역별·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sup>4)</sup>

책판목록상의 「中庸」 판본은 크게 지역별로는 경기, 호남, 영남, 북한, 기타지역 등 다섯 개의 지역권으로 나누었으며, 시기별로는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sup>5)</sup>

2) ‘成化十四年印出’의 刊記가 있는 판본은 2卷3冊으로 되어 있다.

3) 윤병태, “韓國의 冊板目錄,” 『古印刷文化』 제7집(2000), 9-34.

4) 책판목록상에 나타난 서명의 애매함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이 점은 四書에서 모두 나타나는 현상으로, 「中庸」의 예를 들면 「中庸」이 「中庸章句」인지 「中庸章句大全」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책판목록들간에도 그 한계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책판목록상의 서명을 그대로 사용하여 「中庸」, 「中庸章句」, 「中庸章句大全」등을 모두 다른 종류의 책으로 간주하고 표를 작성하였다.

## 2.1.1 「中庸」 冊板의 수록현황

현존하는 책판목록들에 수록되어 있는 「中庸」 책판들을 다음과 같이 <표 1>로 정리하였다.

<표 1> 冊板目錄에 나타난 漢文本 「中庸」의 수록현황

| 地域       | 冊板       | 攷事<br>撮要<br>1576 | 攷事<br>撮要<br>1585 | 攷事<br>撮要<br>1674 | 嶺南<br>冊板記<br>1576<br>1585 | 慶尙<br>道<br>冊板<br>1730 | 冊板<br>置簿<br>冊<br>영조 | 三南<br>冊板<br>1743 | 諸道<br>冊板<br>錄<br>1750 | 完營<br>冊板<br>1759 | 各道<br>冊板<br>1778 | 古冊<br>板有<br>處考<br>1780 | 鐵板<br>考<br>1796 | 各道<br>冊板<br>1840 |
|----------|----------|------------------|------------------|------------------|---------------------------|-----------------------|---------------------|------------------|-----------------------|------------------|------------------|------------------------|-----------------|------------------|
| 京畿<br>地域 | 中央<br>官署 | 中庸               | 中庸               | 中庸               |                           |                       |                     |                  |                       |                  |                  |                        |                 |                  |
|          | 南漢       |                  |                  |                  |                           |                       |                     |                  |                       |                  | 中庸               | 中庸*                    | 章句              | 中庸               |
|          | 北漢       |                  |                  |                  |                           |                       |                     |                  |                       |                  |                  |                        | 大全              | 大全               |
| 湖南<br>地域 | 鎭山       | 中庸               | 中庸               |                  |                           |                       |                     |                  |                       |                  |                  |                        |                 |                  |
|          | 羅州       |                  |                  |                  |                           | 中庸                    |                     |                  | 中庸                    |                  |                  |                        |                 |                  |
|          | 南平       |                  |                  |                  |                           | 中庸                    |                     |                  | 中庸                    |                  |                  |                        |                 |                  |
|          | 泰仁       |                  |                  |                  |                           |                       |                     |                  |                       |                  |                  |                        |                 | 奎壁               |
|          | 全州       |                  |                  |                  |                           |                       |                     |                  |                       |                  |                  |                        |                 | 中庸               |
|          | 井邑       | 大文               | 大文               |                  |                           |                       |                     |                  |                       |                  |                  |                        |                 |                  |
| 嶺南<br>地域 | 濟州       |                  |                  |                  |                           |                       |                     |                  |                       |                  |                  | 中庸                     | 大全              |                  |
|          | 嶺營       |                  |                  |                  |                           | 中庸                    |                     | 中庸               | 中庸                    | 中庸               | 中庸               |                        | 大全              |                  |
|          | 慶州       | 中庸               | 中庸               |                  | 中庸                        |                       |                     |                  |                       |                  | 中庸               |                        |                 |                  |
|          | 南海       |                  | 中庸               |                  |                           |                       |                     |                  |                       |                  |                  |                        |                 |                  |
|          | 大邱       |                  |                  |                  |                           | 中庸                    |                     |                  |                       |                  |                  |                        |                 |                  |
|          | 星州       |                  |                  |                  |                           | 中庸                    |                     |                  |                       |                  |                  |                        |                 |                  |
| 北韓<br>地域 | 晉州       | 中庸               | 中庸               |                  | 中庸                        |                       |                     |                  |                       |                  |                  | 中庸                     |                 |                  |
|          | 善山       | 中庸               | 中庸               |                  |                           |                       |                     |                  |                       |                  |                  |                        |                 |                  |
|          | 遂安       | 中庸               | 中庸               |                  |                           |                       |                     |                  |                       |                  |                  |                        |                 |                  |
|          | 寧邊       |                  |                  |                  |                           |                       |                     |                  |                       |                  | 中庸               |                        | 大全              | 中庸               |
|          | 平壤       | 中庸               | 中庸               |                  |                           |                       |                     |                  |                       |                  |                  |                        |                 |                  |
|          | 咸營       |                  |                  |                  |                           | 中庸                    |                     | 中庸               |                       |                  |                  |                        | 大全              |                  |
| 其他       | 海州       | 中庸               | 中庸               |                  |                           |                       |                     |                  |                       |                  |                  |                        |                 |                  |
|          | 安邊       | 中庸               | 中庸               |                  |                           |                       |                     |                  |                       |                  |                  |                        |                 |                  |
|          | 原州       | 中庸               | 中庸               |                  |                           |                       |                     |                  |                       |                  |                  |                        |                 |                  |
|          | 洪州       | 中庸               | 中庸               |                  |                           |                       |                     |                  |                       |                  |                  |                        |                 |                  |

(축약서명 임. 예: 大全 → 中庸章句大全, 大文 → 中庸大文, 章句 → 中庸章句)

(\*: 책판목록의 지명은 廣州로 표기되어 있으나, 남한산성이 속해 있는 곳이었으므로 南漢으로 추정함)

- 5) 시기를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나눈 이유는 일반적으로 조선사회가 임진왜란을 전후로 해서 크게 구분되며, 또한 임진왜란 이후에야 비로소 언해본 「中庸」 판본이 책판목록에 기재되기 때문이다.

책판목록의 기록에 의하면 漢文本 「中庸」은 총 25개 지역에서 모두 5종의 책판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책판목록의 기록에 따르면 임진왜란 이전에 많은 지역에서 상당수의 「中庸」 책판을 소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현존하는 한문본 「中庸」들을 조사해 본 결과 임진왜란 이전의 자료는 책판목록상의 기록만큼 많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戰亂 중에 상당수의 책판이 불타 없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책판목록상의 기록으로는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이 가장 많은 곳에서 「中庸」 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조사한 결과 실물은 경기지역과 영남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 2.1.2 「中庸」의 開板地別 刊行現況

### 1) 경기지역

경기지역에서는 모두 4개 처에서 3종의 「中庸」 책판을 소장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관서에서 「中庸」 책판을 소장하고 있던 곳은 교서관이다. 교서관은 국가적인 출판 전담 부서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中庸」의 책판을 소장하고 있던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러한 특성은 論語와 大學의 판본연구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이다.

또한 南漢[남한산성]의 開元寺와 北漢[북한산성]의 太古寺 2 곳에서 「中庸」 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현재 ‘병신삼월북한성개간’(丙申三月北漢城開刊)(원광대 148.2×816 $\times$ )과 ‘임술초추북한중간’(任戌初秋北漢重刊)(규장각 규683)이라는 간기를 가진 「中庸章句大全」이 현존한다. 즉, 北漢에서는 2번 「中庸章句大全」이 간행되었으나, 책판목록의 기록으로는 1종으로 표시되어, 책판목록의 기록만으로는 자세한 간행사황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따른다.

### 2) 호남지역

호남지역에서는 7개 처에서 2종의 「中庸」 책판을 소장하고 있었다. 임진왜란

이전에 2곳, 임진왜란 이후에 5곳에서 책판을 소장하고 있었으나, 이렇게 많은 책판을 소장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현존하는 판본은 태인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中庸奎壁」과 전주의 私板인 하경룡장판의 「中庸章句大全」으로 밝혀졌다.

또한 濟州에서도 2종의 「中庸」 판본이 간행되었음을 책판목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中庸」은 「古冊版有處攷」, 「耽羅志」, 「濟州大靜旌義邑誌」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간행시기를 1653년으로 추정하고, 「中庸章句大全」은 「鏤板考」에 기록되어 있어서 1796년 이전으로 추정한다.<sup>6)</sup> 그러나 아쉽게 제주도에서 간행한 판본은 아직 실물을 발견하지 못 하였다.

### 3) 영남지역

영남지역에서는 7개 처에서 2종의 「中庸」 책판을 소장하고 있었다. 임진왜란 이전에 4곳, 임진왜란 이후에는 5곳에서 책판을 소장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주와 진주는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에 지속적으로 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물은 현존하지 않는다. 경상감영에서 「中庸」과 「中庸章句大全」을 각각 1종씩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 6종의 「中庸章句大全」이 嶺營에서 간행되어 現存하고 있다. 현존하는 嶺營本 6종의 간기는 다음과 같다.

- ① 乙丑四月嶺營重刊
- ② 戊子新刊嶺營藏板
- ③ 庚辰七月嶺營重刊
- ④ 戊午五月嶺營重刊
- ⑤ 戊辰六月嶺營重刊
- ⑥ 丁巳正月嶺營重刊

영남지역도 호남지역처럼 책판목록상에서는 7개 처에서 책판을 소장한 것으로

6) 남권희, “濟州道 刊行의 書籍과 記錄類,” 「古印刷文化」 제8집(2001), 청주고인쇄박물관 236.

나타났으나, 실제로 남아있는 것은 경상감영에서 간행한 嶺營本뿐이다.

#### 4) 북한지역

북한지역에서는 6개 처에서 2종의 「中庸」의 책판을 소장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 간행된 「中庸」 판본 가운데 현존하는 실물에는 4종의 「中庸章句大全」이 있는데, 그 刊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乙丑四月寧邊府開刊
- ② 丙午孟秋咸鏡監營開刊
- ③ 萬曆四十年咸興府開刊
- ④ 辛未夏因監營分付鏡城府開刊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책판기록상에서 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곳과 현존하는 실물의 刊行處와는 차이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책판목록에서 누락되었거나, 책판의 이동 또는 消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지역의 경우 임진왜란 이전에는 「中庸」 1종이 소장되었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中庸」, 「中庸章句大全」 등 2종이 소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 5) 기타지역

앞서 언급한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의 「中庸」 책판 소장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도 원주와 충청도의 洪州에서 임진왜란 이전에 「中庸」의 책판을 1종씩 소장하고 있는데, 원주의 경우 論語와 大學과 마찬가지로 세종 연간에 명나라에서 수입한 영락판 「四書五經大全」 가운데 하나인 「中庸章句大全」을 강원도에서 복각한 「中庸章句大全」이 아닌가 생각된다.

## 2.2 현존본 한문본 「中庸」의 판본 현황

한문본 「中庸」은 서명별로 「中庸」, 「中庸章句」, 「中庸章句大全」, 「中庸奎壁」,

「中庸大文」, 「庸學大文」, 「庸學正文」, 「三經四書正文」 등 8종이 현존하고 있으며,<sup>7)</sup> 동일 서명 하에서도 판본이 다른 것들을 구분하면 총 종수(種數)는 48종에 이르고 있다. 이들 판본을 판종별, 간행사항별, 판식의 특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이 구분된다.<sup>8)</sup>

<표 2> 한문본 「中庸」 板本の 調査現況

| 書名             | 板種            | 刊行處   | 刊行年                | 板式の 特徴   |           |        |              |
|----------------|---------------|-------|--------------------|----------|-----------|--------|--------------|
|                |               |       |                    | 邊欄       | 半廓 (cm)   | 行字數    | 魚尾           |
| 中庸             | 木板本           | 校書館   | 1758 序             | 쌍변       | 24.1×17.1 | 6행17자  | 上二葉花紋        |
|                | 木板本           | [校書館] | 1461 序             | 쌍변       | 21.6×15.2 | 8행14자  | 대흑구<br>上下下向黑 |
|                | 木板本           | 完山府   | 1621 跋             | 쌍변       | 21.3×15.2 | 8행14자  | 대흑구<br>上下下向黑 |
| 中庸<br>章句<br>大全 | 初鑄甲寅字本        | 鑄字所   | 1478               | 단변       | 24.9×16.8 | 10행17자 | 三葉花紋         |
|                | 木板本           | 미상    | [16C]              | 단변       | 22.7×16.9 | 10행17자 | 흑구, 內向黑      |
|                | 戊申字本          | 校書館   | 1695 賜             | 쌍변       | 24.8×17.2 | 10행17자 | 二葉花紋         |
|                | 戊申字本          | 校書館   | [18C]              | 단변       | 24.1×16.7 | 10행17자 | 二葉花紋         |
|                | 丁酉字本          | 校書館   | 1793               | 단변       | 24.8×17.2 | 10행18자 | 上二葉花紋        |
|                | 木板本           | 內閣    | 1820               | 단변       | 24.2×17.2 | 10행18자 | 上二葉花紋        |
|                | 木板本           | 慶尙監營  | 1828               | 단변       | 23.1×17.1 | 10행18자 | 上二葉花紋        |
|                | 木板本(後刷)       | 在田堂書鋪 | 1913               | 단변       | 22.3×17.0 | 10행18자 | 上二葉花紋        |
|                | 木板本(後刷)       | 匯東書館  | 1918               | 단변       | 24.3×17.1 | 10행18자 | 上二葉花紋        |
|                | 後期芸閣<br>印書體字本 | 校書館   | [17C 末 -<br>18C 初] | 左右<br>雙邊 | 21.5×13.4 | 10행20자 | 二葉花紋         |
|                | 訓練都監字本        | 訓練都監  | [17C 初]            | 쌍변       | 25.3×15.8 | 10행22자 | 三葉花紋         |
|                | 木活字本          |       | [19C 末]            | 쌍변       | 25.6×17.3 | 10행18자 | 二葉花紋         |
|                | 明本覆刻本         | 미상    | [16C]              | 쌍변       | 26.0×17.4 | 10행22자 | 대흑구내향흑       |
|                | 明本覆刻本         | 咸興府   | 1612               | 쌍변       | 24.1×16.8 | 10행22자 | 대흑구내향흑       |
|                | 明本覆刻本         | 미상    | [16C]              | 단변       | 25.3×17.5 | 10행22자 | 내향흑          |
|                | 明本覆刻本         | 寧邊府   | [1745]             | 단변       | 22.7×16.4 | 10행22자 | 二葉花紋         |
|                | 明本覆刻本         | 咸鏡監營  | [1726]             | 쌍변       | 27.5×18.0 | 10행22자 | 二葉花紋         |
|                | 明本覆刻本         | 北漢    | [1656]             | 쌍변       | 24.8×18.4 | 10행22자 | 二葉花紋         |
|                | 明本覆刻本         | 北漢    | [1742]             | 쌍변       | 24.3×18.5 | 10행22자 | 二葉花紋         |

7) 서명(권두서명)으로 분류하면 8종이 되나, 내용상으로는 3가지로 대별이 되는데, 즉 주희의 「中庸章句」, 호광 등이 편찬한 「中庸章句大全」, 「中庸」의 본문만을 담은 「中庸大文」과 「中庸正文」으로 구분할 수 있다.

8) 표를 작성한 기준은 먼저 서명별로 구분하였고, 동일서명 아래에서는 판식의 구분이 쉽게 되는 행자수를 기준으로 배열하였다.

|                |               |       |         |    |           |        |       |
|----------------|---------------|-------|---------|----|-----------|--------|-------|
|                | 明本覆刻本         | 成均館   | 1672 賜  | 쌍변 | 26.1×18.5 | 10행22자 | 二葉花紋  |
|                | 明本覆刻本         | 成均館   | 1686 賜  | 쌍변 | 25.0×18.0 | 10행22자 | 二葉花紋  |
|                | 明本覆刻本         | 慶尙監營  | [1745]  | 쌍변 | 24.6×18.5 | 10행22자 | 二葉花紋  |
|                | 明本覆刻本         | 慶尙監營  | [1760]  | 단변 | 23.5×18.4 | 10행22자 | 二葉花紋  |
|                | 明本覆刻本         | 慶尙監營  | [1798]  | 쌍변 | 24.2×18.5 | 10행22자 | 二葉花紋  |
|                | 明本覆刻本         | 미상    | [18C 中] | 단변 | 25.3×16.8 | 10행22자 | 魚尾不定  |
| 中庸<br>章句<br>大全 | 明本覆刻本         | 慶尙監營  | 1808    | 쌍변 | 23.7×18.3 | 10행22자 | 二葉花紋  |
|                | 明本覆刻本         | 慶尙監營  | [1857]  | 쌍변 | 24.0×18.0 | 10행22자 | 二葉花紋  |
|                | 明本覆刻本         | 미상    | 1665 賜  | 단변 | 22.7×17.3 | 10행22자 | 二葉花紋  |
|                | 明本覆刻本         | 河慶龍   | 1810    | 쌍변 | 23.8×18.3 | 10행22자 | 二葉花紋  |
|                | 明本覆刻本         | 鏡城府   | 미상      | 쌍변 | 26.0 17.9 | 10행22자 | 二葉花紋  |
|                | 木板本           | 武橋    | [1874]  | 단변 | 16.4×13.5 | 10행22자 | 上黑    |
|                | 木板本(後刷)       | 新舊書林  | 1913    | 단변 | 15.9×13.3 | 10행22자 | 上黑    |
|                | 明本覆刻本<br>(後刷) | 七書房   | 1916    | 쌍변 | 24.6×18.2 | 10행22자 | 二葉花紋  |
|                | 木板本           | 미상    | 미상      | 단변 | 20.1×15.5 | 11행20자 | 黑     |
|                | 木板本           | 在田堂書鋪 | 1913    | 단변 | 19.9×16.3 | 11행20자 | 黑     |
|                | 木板本           | 미상    | [19C 中] | 단변 | 19.7×13.7 | 11행21자 | 二葉花紋  |
|                | 木板本           | 新舊書林  | 1913    | 단변 | 23.9×17.4 | 13행28자 | 上黑    |
| 中庸<br>章句       | 庚辰字本          | 校書館   | 1586 賜  | 쌍변 | 26.2×16.7 | 10행18자 | 三葉花紋  |
| 奎壁             | 木板本           | [泰仁]  | 미상      | 단변 | 12.2×10.4 | 10행22자 | 無魚尾   |
| 中庸<br>大文       | 丁酉字本          | 校書館   | 정 조 연 간 | 쌍변 | 24.5×17.5 | 10행17자 | 上三葉花紋 |
| 庸學<br>大文       | 戊申字本          | 校書館   | [1695]  | 쌍변 | 25.2×17.5 | 10행18자 | 二葉花紋  |
| 三經<br>四書<br>正文 | 壬辰字本          | 芸香閣   | 1775    | 단변 | 25.1×17.1 | 10행18자 | 上二葉花紋 |
|                | 木板本           | 內閣    | 1820    | 단변 | 24.9×17.2 | 10행18자 | 上二葉花紋 |
|                | 後期芸閣<br>印書體字本 | 校書館   | [18C 初] | 쌍변 | 21.3×13.7 | 10행20자 | 上白魚尾  |
| 庸學<br>正文       | 木板本           | 미상    | [1812]  | 단변 | 18.4×14.7 | 10행20자 | 二葉花紋  |

### 3. 漢文本「中庸」諸板本의 分析

#### 3.1 刊行地域別 分析

현존하는 한문본「中庸」판본의 간행지역을 경기지역, 영남지역, 호남지역,

북한지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3.1.1 경기지역

조선시대에 경기지역에서 간행된 한문본 「中庸」은 모두 23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中庸」 판본이 이 지역에서 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를 서명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경기지역에서 간행한 漢文本 中庸의 板本

| 書名             | 刊行處   | 刊行年         | 行字數    | 板 種         |
|----------------|-------|-------------|--------|-------------|
| 中庸             | 校書館   | 1758序       | 6행17자  | 木板本         |
|                | [校書館] | 1461序       | 8행14자  | 木板本         |
| 中庸章句           | 校書館   | 1586賜       | 10행18자 | 庚辰字本        |
| 中庸<br>章句<br>大全 | 鑄字所   | 1478        | 10행17자 | 初鑄甲寅字本      |
|                | 校書館   | 1695賜       | 10행17자 | 戊申字本        |
|                | 校書館   | [18C]       | 10행17자 | 戊申字本        |
|                | 校書館   | 1793        | 10행18자 | 丁酉字本        |
|                | 內閣    | 1820        | 10행18자 | 木板本(丁酉字本覆刻) |
|                | 匯東書館  | 1918        | 10행18자 | 木板本(內閣本 後刷) |
|                | 校書館   | [17C末/18C初] | 10행20자 | 後期芸閣印書體字本   |
|                | 訓練都監  | [17C初]      | 10행22자 | 訓練都監字本      |
|                | 北漢    | [1656]      | 10행22자 | 明本覆刻本       |
|                | 北漢    | [1742]      | 10행22자 | 明本覆刻本       |
|                | 成均館   | 1672賜       | 10행22자 | 明本覆刻本       |
|                | 成均館   | 1686賜       | 10행22자 | 明本覆刻本       |
|                | 武 橋   | [1874]      | 10행22자 | 木板本         |
|                | 新舊書林  | 1913        | 10행22자 | 木板本(武橋本 後刷) |
|                | 新舊書林  | 1913        | 13행28자 | 木板本         |
| 中庸大文           | 校書館   | [正祖年間]      | 10행17자 | 丁酉字本        |
| 庸學大文           | 校書館   | [1695]      | 10행18자 | 戊申字本        |
| 三經             | 芸香閣   | 1775        | 10행18자 | 壬辰字本        |
| 四書             | 內 閣   | 1820        | 10행18자 | 木板本(壬辰字本覆刻) |
| 正文             | 校書館   | [18C初]      | 10행20자 | 後期芸閣印書體字本   |

위의 <표 3>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기지역에서 간행된 한문본 「中庸」 판본의

대부분은 한문본 大學 판본과 마찬가지로, 출판을 관장했던 중앙관서인 교서관, 운향각, 내각, 주자소, 훈련도감 등에서 간행되었다. 그 밖에 成均館, 北漢, 방각본 간행처였던 무교, 회동서관, 신구서림에서도 「中庸」을 간행하였다.

成均館에서는 두 차례의 간행이 있었는데, “庚戌三月成均館開刊”이라는 간기를 지닌 판본과 “丙寅四月日成均館重刊”이라는 간기를 지닌 판본이 현존한다. 庚戌年에 開刊된 板本은 ‘康熙十一年(顯宗13, 1672)八月十六日內賜司僕寺正李端錫中庸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金(手缺)’<sup>9)</sup>라는 내사기가 있어서 1670년으로 추정하였다. 丙寅年에 重刊된 판본은 현재 산기문고에 소장된 「中庸章句大全」(1-154)에 ‘康熙二十五年…’이라는 內賜記가 있어, 1686년으로 간기를 추정할 수 있다.<sup>10)</sup>

또한 北漢에서 간행된 2종의 판본이 현존하는데, 이들은 각각 “丙申三月日北漢城 開刊”, “壬戌初秋 北漢重刊”의 간기를 갖고 있다. 鏤板考에 北漢의 太古寺에서 사서삼경과 언해본을 판각하였던 기록이 있다. 성균관에서 庚戌年에 간행된 판본과 北漢에서 丙申年에 간행된 판본을 살펴보면, 명본의 특징인 본문에 구두점이 찍혀 있는 것이 발견된다.

무교에서 간행된 판본은 “甲戌孟秋武橋新刊”이라는 刊記가 있다. 무교에서 간행된 여러 서적 중 비교적 간기가 정확히 밝혀진 것을 살펴보니 그 시기가 1851년부터 1870년 사이였다.<sup>11)</sup>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甲戌年은 1874년이어서 무교본 「中庸章句大全」의 간년을 1874년으로 추정하였다

### 3.1.2 영남지역

영남지역에서는 8종의 한문본 「中庸」 판본이 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9) 성균관대학교 준경각 소장판본(청구기호 : A09C - 0004h 稀 )

10) 송일기·정왕근, “조선시대에 간행된 干支本 大學의 刊年推定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4호(2004).

11) 이혜경, “朝鮮朝 坊刻本の 書誌學的 研究,”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8-21.

<표 4> 영남지역에서 간행한 漢文本 「中庸」의 板本

| 書名                         | 刊行處   | 刊行年    | 行字數    | 板 種      | 備考       |
|----------------------------|-------|--------|--------|----------|----------|
| 中<br>庸<br>章<br>句<br>大<br>全 | 慶尙監營  | 1828   | 10행18자 | 丁酉字本覆刻   | 戊子新刊嶺營藏板 |
|                            | 慶尙監營  | [1745] | 10행22자 | 木明本覆刻    | 乙丑四月嶺營重刊 |
|                            | 慶尙監營  | [1760] | 10행22자 | 明本覆刻     | 庚辰七月嶺營重刊 |
|                            | 慶尙監營  | [1798] | 10행22자 | 明本覆刻     | 戊午五月嶺營重刊 |
|                            | 慶尙監營  | 1808   | 10행22자 | 明本覆刻     | 戊辰六月嶺營重刊 |
|                            | 慶尙監營  | [1857] | 10행22자 | 明本覆刻     | 丁巳正月嶺營重刊 |
|                            | 在田堂書鋪 | 1913   | 10행18자 | 戊子嶺營本 後刷 |          |
|                            | 在田堂書鋪 | 1913   | 11행20자 | 木板本      |          |

영남지역에서 간행된 「中庸」 판본은 주로 경상감영에서 간행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6종이 감영에서 간행되었고, 시기적으로는 주로 18세기 이후로 추정된다.<sup>12)</sup> 대부분 10행22자의 명본의 판식을 따르고 있고, 지방감영 중 가장 빈번하게 간행하였다. 그러나 경상감영의 간행본들이 지금까지 알려진대로 약 20여년을 주기로 계속 새겨서 간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기존의 판을 누가적으로 보충하여 간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판본들에 비하여 유달리 마모된 판이 많다.<sup>13)</sup> 또한 이 지역에서 간행된 판본 8종이 모두 「中庸章句大全」이다. 경상감영본의 간기추정은 책판목록에 의거하여 한 것이라,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정확히 밝혀야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 3.1.3 호남지역

호남지역에서는 4종의 「中庸」 판본이 현존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12) 송일기·정왕근, 전거서, 206-208.

조정화, “조선조 嶺南觀察營本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 研究』 제2집(1987), 302-303.

13) 남권희, “慶尙監營 刊行本과 樂育齋 所藏書冊 分析,” 『慶尙監營의 綜合的 研究』(대구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4), 293-305.

<표 5> 호남지역에서 간행한 漢文本 「中庸」의 板本

| 書名 | 刊行處    | 刊行年    | 行字數    | 板 種            |
|----|--------|--------|--------|----------------|
| 中庸 | 完山府    | 1621跋  | 8행14자  | 木板本(1461년본 복각) |
| 章句 | 全州 河慶龍 | 1810   | 10행22자 | 木板本(명본복각)      |
| 大全 | 全州 七書房 | 1916   | 10행22자 | 木板本(하경룡본 후쇄)   |
| 奎壁 | [泰仁]   | [1808] | 10행22자 | 木板本            |

호남지역에서는 1621년 跋文이 있는 8행14자본이 완산부에서 간행되었고, 그 외 3종은 모두 방각본 간행처에서 간행되었다. 奎壁은 1840년(현종 6년)에 편찬된 「各道冊板目錄」의 泰仁편에 「四書奎壁」十六冊이라는 기록이 보이고 있는데, 이 규벽본 “禮記” 책15의 말미에는 ‘戊辰夏開刊’이란 간기가 기재되어있어 1808년 무진년에 개판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 3.1.4 북한지역

북한지역에서는 4종의 「中庸」 판본이 현존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北韓지역에서 간행한 漢文本 「中庸」의 板本

| 書名 | 刊行處  | 刊行年    | 行字數    | 板 種       |
|----|------|--------|--------|-----------|
| 中庸 | 咸興府  | 1612   | 10행22자 | 木板本(명본복각) |
| 章句 | 寧邊府  | [1745] | 10행22자 | 木板本(명본복각) |
| 大全 | 咸鏡監營 | [1726] | 10행22자 | 木板本(명본복각) |
|    | 鏡城府  | 미상     | 10행22자 | 木板本(명본복각) |

북한지역에서는 「中庸章句大全」 4종이 간행되었다. 간행지로는 함흥부, 영변부, 경성부, 함경감영 4곳인데, 이 4종 모두 지방관판본이고, 영변부를 제외한 3곳이 함경지방이다. 또한 10행22자의 明本을 복각한 판본들이다. 영남지역과 마찬가지로 북한지역의 판본들의 서명이 모두 「中庸章句大全」이다.

이상으로 간행지역별로 한문본 「中庸」 판본을 살펴보았는데, 한문본 論語, 大學 판본과 마찬가지로, 경기지역과 영남지역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월등하게 「中庸」 판본이 많이 간행되었다. 경기지역에서 간행된 「中庸」 판본의 대부분은 출판을 담당하던 중앙관서에서 인출되었고, 영남지역에서 간행된 「中庸」 판본은 주로 경상감영에서 간행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한문본 論語 大學 판본과 비교해 볼 때, 「中庸」의 경우 호남지역과 북한 지역에서도 자주 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3.2 刊行時期別 分析

조선시대에 간행된 한문본 「中庸」 판본을 그 간행시기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시기는 크게 임진왜란 이전과 이후, 그리고 한일합방 이후 등 세 시기로 구분하고 임진왜란 이후의 판본들은 다시 17세기, 18세기, 19세기 등으로 세분하였다.

#### 3.2.1 임진왜란 이전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한문본 「中庸」은 6종으로, 「中庸」 1종, 「中庸章句大全」 4종, 「中庸章句」 1종이 현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은 간행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漢文本 「中庸」의 板本

| 刊行年   | 書 名    | 刊行處   | 行字數    | 板種     | 備考         |
|-------|--------|-------|--------|--------|------------|
| 1461序 | 中庸     | [校書館] | 8행14자  | 木板本    | 天順辛巳崔恒序    |
| 1478  | 中庸章句大全 | 鑄字所   | 10행17자 | 初鑄甲寅字本 | 成化14印出     |
| [16C] | 中庸章句大全 | 미상    | 10행17자 | 木板本    | 初鑄甲寅字 覆刻系列 |
| 1586賜 | 中庸章句   | 校書館   | 10행18자 | 庚辰字本   | 萬曆14內賜     |
| [16C] | 中庸章句大全 | 미상    | 10행22자 | 明本覆刻本  |            |
| [16C] | 中庸章句大全 | 미상    | 10행22자 | 明本覆刻本  |            |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된 판본들은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6종으로 추정할

수 있다. 최항의 序文이 있는 8행14자본의 「中庸」과 成化14년에 인출된 기록이 있는 「中庸章句大全」과 萬曆14년에 內賜된 「中庸章句」와 간행년을 16세기로 추정된 「中庸章句大全」 3종 등이 현존하는 판본들이다. 10행17자본이면서 간행처가 미상인 판본은 초주갑인자의 복각계열이고, 10행22자이면서 간행처가 미상인 판본 2종은 명본에서 보이는 구두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으며, 판심이 흑구와 내향흑어미로 되어 있어서 그 간행시기를 16세기로 추정하였다.

### 3.2.2 임진왜란 이후

#### 1) 17세기 판본

17세기에 간행된 한문본 「中庸」은 모두 9종으로, 「中庸章句大全」 7종, 「中庸」 1종, 「庸學大文」 1종이 현존하고 있다. 이를 표로 작성해 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17세기에 간행된 漢文本 「中庸」의 板本

| 刊行年     | 書名     | 刊行處  | 行字數    | 板種        | 備考        |
|---------|--------|------|--------|-----------|-----------|
| [17C 初] | 中庸章句大全 | 訓練都監 | 10행22자 | 訓練都監字本    |           |
| 1612    | 中庸章句大全 | 咸興府  | 10행22자 | 明本覆刻本     | 萬曆40咸興府開刊 |
| 1621跋   | 中庸     | 完山府  | 8행14자  | 1461년본의覆刻 | 天啓辛酉許稷謹跋  |
| [1656]  | 中庸章句大全 | 北漢   | 10행22자 | 明本覆刻本     | 丙申三月北漢城開刊 |
| 1665賜   | 中庸章句大全 | 미상   | 10행22자 | 明本覆刻本     | 康熙4內賜     |
| 1672賜   | 中庸章句大全 | 成均館  | 10행22자 | 明本覆刻本     | 康熙11內賜    |
| 1686賜   | 中庸章句大全 | 成均館  | 10행22자 | 明本覆刻本     | 康熙25內賜    |
| 1695賜   | 中庸章句大全 | 校書館  | 10행17자 | 戊申字本      | 康熙34侍講院內賜 |
| [1695]  | 庸學大文   | 校書館  | 10행18자 | 戊申字本      |           |

위의 <표 8>은 17세기에 간행된 「中庸」을 간행연도순으로 배열하였는데, 이 시기의 판본들은 주로 광해군 연간, 현종 연간, 숙종 연간에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종의 판본 중 「中庸章句大全」이 7종인데, 이들 중 5종이 明板 「中庸章句大全」의 복각본이다. 완산부에서 간행된 8행14자본은 1461년 서문이 있는 판

본을 저본으로 하여 복각한 것이다. 숙종연간(1675~1720년)에 간행된 「中庸」 판본으로는 2종의 무신자로 찍은 활자본과 성균관에서 간행한 「中庸章句大全」이 현존한다.

## 2) 18세기 판본

18세기에 간행된 한문본 「中庸」은 모두 14종으로, 서명별로는 「中庸章句大全」 10종, 「三經四書正文」 2종, 「中庸」, 「中庸大文」 각 1종 등이 현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간행연도별로 정리해 보면 <표 9>와 같다.

<표 9> 18세기에 간행된 漢文本 「中庸」의 板本

| 刊行年         | 書名     | 刊行處  | 行字數    | 板種        | 備考           |
|-------------|--------|------|--------|-----------|--------------|
| [17C末-18C初] | 中庸章句大全 | 校書館  | 10행20자 | 後期芸閣印書體字本 |              |
| [18C初]      | 三經四書正文 | 校書館  | 10행20자 | 後期芸閣印書體字本 |              |
| [1726]      | 中庸章句大全 | 咸鏡監營 | 10행22자 | 明本覆刻本     | 丙午孟秋咸鏡監營開刊   |
| [1742]      | 中庸章句大全 | 北漢   | 10행22자 | 明本覆刻本     | 壬戌初秋北漢重刊     |
| [1745]      | 中庸章句大全 | 寧邊府  | 10행22자 | 明本覆刻本     | 乙丑四月寧邊府開刊    |
| [1745]      | 中庸章句大全 | 慶尙監營 | 10행22자 | 明本覆刻本     | 乙丑四月嶺營重刊     |
| [18C中]      | 中庸章句大全 | 未詳   | 10행22자 | 明本覆刻本     |              |
| [18C]       | 中庸章句大全 | 校書館  | 10행17자 | 戊申字本      | 弘文館印(규중 686) |
| 1758序       | 中庸     | 校書館  | 6행17자  | 木板本       | 御製序歲戊寅       |
| [1760]      | 中庸章句大全 | 慶尙監營 | 10행22자 | 明本覆刻本     | 庚辰七月嶺營重刊     |
| 1775        | 三經四書正文 | 芸香閣  | 10행18자 | 壬辰字本      | 崇禎三乙未芸香閣活印   |
| 1793        | 中庸章句大全 | 校書館  | 10행18자 | 丁酉字本      | 上之18癸丑新印     |
| [1798]      | 中庸章句大全 | 慶尙監營 | 10행22자 | 明本覆刻本     | 戊午五月嶺營重刊     |
| [正祖연간]      | 中庸大文   | 校書館  | 10행17자 | 丁酉字本      |              |

18세기는 조선왕조에서 영조·정조가 재위하던 시절로 세종 이후로 제2의 문예부흥기라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간행된 「中庸」 판본들 역시 論語 大學와 마찬가지로 다수가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판본들은 중앙관서와 지방의 관판본들이 고루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서관에서는 후기운

각인서체자, 무신자, 정유자 등의 활자로 6번 간행하였고, 嶺營에서 3번의 간행이 이루어졌다. 10종의 「中庸章句大全」 중 7종이 명본복각본이다.

### 3) 19세기 판본

19세기에 간행된 한문본 「中庸」은 모두 10종으로, 서명별로는 「中庸章句大全」 7종, 「中庸」, 「庸學正文」, 「三經四書正文」 각 1종 등이 현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간행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표 10>과 같다.

<표 10> 19세기에 간행된 漢文本 「中庸」의 板本

| 刊行年     | 書名     | 刊行處    | 行字數    | 板種     | 備考        |
|---------|--------|--------|--------|--------|-----------|
| 1808    | 中庸章句大全 | 慶尙監營   | 10행22자 | 明本覆刻本  | 戊辰六月嶺營重刊  |
| 1810    | 中庸章句大全 | 全州 河慶龍 | 10행22자 | 明本覆刻本  | 庚午仲春河慶龍藏板 |
| [1812]  | 庸學正文   | 미상     | 10행20자 | 木板本    |           |
| 1820    | 中庸章句大全 | 內閣     | 10행18자 | 丁酉字覆刻本 | 庚辰新刊內閣藏板  |
| 1820    | 三經四書正文 | 內閣     | 10행18자 | 壬辰字覆刻本 | 庚辰新刊內閣藏板  |
| 1828    | 中庸章句大全 | 慶尙監營   | 10행18자 | 丁酉字覆刻本 | 戊子新刊嶺營藏板  |
| [1857]  | 中庸章句大全 | 慶尙監營   | 10행22자 | 明本覆刻本  | 丁巳正月嶺營重刊  |
| [19C 甲] | 中庸章句大全 | 미상     | 11행21자 | 木板本    |           |
| [1874]  | 中庸章句大全 | 武橋     | 10행22자 | 木板本    | 甲戌孟秋武橋新刊  |
| [19C 乙] | 中庸章句大全 | 미상     | 10행18자 | 丁酉字覆刻本 |           |

19세기에 간행된 판본들에는 주로 순조 연간(1800~1834년)에 간행된 것들이 많으며, 「中庸章句大全」이 7종으로 가장 많이 간행되었다. 그 동안 중앙관서와 지방의 관판본들이 간행되었는데, 19세기에 들어서서 방각본 간행처인 전주의 하경룡과 武橋에서 「中庸章句大全」이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 3.2.3 한일합방 이후

한일합방 이후에 간행된 한문본 「中庸」은 「中庸章句大全」 6종이 현존하고 있다. <표 11>에서는 한일합방 이후에 간행된 「中庸」 판본을 간행연도별로 정리하였다.

&lt;표 11&gt; 한일합방 이후에 간행된 漢文本 「中庸」의 板本

| 刊行年  | 書 名    | 刊行處       | 行字數    | 板 種      |
|------|--------|-----------|--------|----------|
| 1913 | 中庸章句大全 | 在田堂書鋪(대구) | 10행18자 | 戊子嶺營本 後刷 |
| 1913 | 中庸章句大全 | 在田堂書鋪(대구) | 11행20자 | 木板本      |
| 1913 | 中庸章句大全 | 新舊書林(경성)  | 10행22자 | 武橋本 後刷   |
| 1913 | 中庸章句大全 | 新舊書林(경성)  | 13행28자 | 木板本      |
| 1916 | 中庸章句大全 | 七書房(전주)   | 10행22자 | 河慶龍本 後刷  |
| 1918 | 中庸章句大全 | 匯東書館(경성)  | 10행18자 | 內閣本 後刷   |

이 시기의 판본들은 대부분 조선후기에 생겨난 방각본 간행처에서 간행되었는데, 「中庸」의 간행처로는 서울지역의 회동서관과 신구서림, 전주의 칠서방, 대구의 재전당서포 등이 있다. 이들은 「中庸」을 간행함에 있어, 한문본 大學과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목판을 가지고 다시 인출하거나 혹은 새로 판을 새겨서 인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표 11>에서 ‘後刷’라고 표시된 판본들이 전자의 경우이며 ‘木板本’으로 표시된 판본들은 후자인 경우다. 대구의 재전당서포와 경성의 신구서림에서는 각각 2종의 「中庸章句大全」을 간행하였는데, 후쇄본 1종과 독자적 판식의 목판본 1종씩을 간행하였다.

이상으로 시기별 구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존하는 한문본 「中庸」 판본들은 주로 17, 18, 19세기에 간행된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 중 숙종, 영조, 정조, 순조 연간에는 많은 판본들이 간행되었고, 이는 論語와 大學판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4. 漢文本 「中庸」 板本の 系統

이제까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선시대에 널리 유통된 漢文本 「中庸」 판본은 송나라 주희의 「中庸章句」<sup>14)</sup>를 저본으로 명나라 영락연간에 호광(胡廣) 등이

14) 주희는 「大學 古本」 1편을 經과 傳으로 구분하여 순서를 바꾸고 闕文을 보충했으며, 「中庸」 또한 鄭玄의 註와 分節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章句’라 하고 論語와 孟子는 여러 학자의

편찬한 ‘大全本’을 들 수 있다

이 대전본은 세종조에 명나라로부터 수입한 「四書五經大全」 판본을 저본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새로 간행된 판본으로, 목판본 29종과 활자본 6종 등 35종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大全本’을 중심으로 목판본과 활자본을 구분하여 그 주요한 계통을 형성한 판본을 살펴보고자 한다.

#### 4.1 木板本 系統

목판본 「中庸章句大全」 중 10행22자의 판식을 가진 판본들은 형태적으로 영락판 「사서오경대전」을 복각하거나, 복각을 거듭한 ‘명본복각본’ 계열을 형성하고 있다. ‘명본복각’계열을 형성하고 있는 목판본 「中庸章句大全」은 19종이 현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정리하여 표로 작성해 보면 다음의 <표 12>와 같다.

<표 12> 明本 系統의 “中庸章句大全” 板本

| 板種    | 刊行年    | 刊行處   | 板式의 特徵 |           |         | 備考   |
|-------|--------|-------|--------|-----------|---------|------|
|       |        |       | 邊欄     | 魚尾        | 行字數     |      |
| 明本覆刻系 | [1428] | [鑄字所] | [雙邊]   | [黑口, 內向黑] | 10 行22자 | 無實物  |
|       | [16C]  | 未詳    | 雙邊     | 黑口, 內向黑   | 10 行22자 |      |
|       | [16C]  | 未詳    | 單邊     | 內向黑       | 10 行22자 |      |
|       | 1612   | 咸興府   | 雙邊     | 黑口, 內向黑   | 10 行22자 | 萬曆40 |
|       | [1656] | 北漢    | 雙邊     | 二葉花紋      | 10 行22자 | 丙申三月 |
|       | 1672賜  | 成均館   | 雙邊     | 二葉花紋      | 10 行22자 | 庚戌三月 |
|       | 1665賜  | 미상    | 單邊     | 二葉花紋      | 10 行22자 | 康熙四年 |
|       | 1686賜  | 成均館   | 雙邊     | 二葉花紋      | 10 行22자 | 丙寅四月 |
|       | [1726] | 咸鏡監營  | 雙邊     | 二葉花紋      | 10 行22자 | 丙午孟秋 |
|       | [1742] | 北漢    | 雙邊     | 二葉花紋      | 10 行22자 | 壬戌初秋 |
|       | [1745] | 寧邊府   | 單邊     | 二葉花紋      | 10 行22자 | 乙丑四月 |
|       | [1745] | 慶尙監營  | 雙邊     | 二葉花紋      | 10 行22자 | 乙丑四月 |

학설을 융합했으므로 ‘集註’라 하였다. (송정숙, 전게서, 556에서 채인용. 孫士毅, 「四書章句集註提要」, 「景印文淵閣四庫全書」, 第97冊, 經部8, 四書類(臺北: 臺北商務印書館, 1986), 1-2.)

|        |      |    |      |        |         |
|--------|------|----|------|--------|---------|
| [1760] | 慶尙監營 | 單邊 | 二葉花紋 | 10행22자 | 庚辰七月    |
| 18C중   | 미상   | 單邊 | 魚尾不定 | 10행22자 |         |
| [1798] | 慶尙監營 | 雙邊 | 二葉花紋 | 10행22자 | 戊午五月    |
| 1808   | 慶尙監營 | 雙邊 | 二葉花紋 | 10행22자 | 戊辰六月    |
| 1810   | 河慶龍  | 雙邊 | 二葉花紋 | 10행22자 | 庚午仲春    |
| 1916   | 七書房  | 雙邊 | 二葉花紋 | 10행22자 | 河慶龍本 後刷 |
| [1857] | 慶尙監營 | 雙邊 | 二葉花紋 | 10행22자 | 丁巳五月    |
| 미상     | 鎭城府  | 雙邊 | 二葉花紋 | 10행22자 | 辛未      |

명나라 成祖 永樂연간(1403~1424)에 호광 등이 편찬한 「四書五經大全」의 형태적 특징은 10행22자이며, 註가 雙行으로 되어 있고, 판심의 어미는 黑口와 內向黑魚尾로 되어 있다. 또한 본문에 구두점이 표시되어 있다.

조선에서 간행된 명본복각본은 시대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선초부터 임진왜란 직후에 간행된 판본들은 명본의 형태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구두점과 내향흑어미를 가지고 있는 판본들(16세기로 추정된 판본 2종과 1612년본)이 이에 해당한다. 17세기에 들어서서, 구두점은 남아 있으나, 어미가 內向黑語尾에서 內向二葉花紋魚尾로 바뀌는 판본들이 있다. 北漢과 成均館에서 개판된 판본(1656년으로 추정된 北漢本본과 1672년의 내사기가 있는 成均館本)이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 후 1686년의 내사기가 있는 성균관본은 마모된 판의 모습을 보여주나 구두점이 보인다. 그 후 복각을 거듭함에 따라 마모된 판이 많이 나타나고, 구두점도 없어지면서, 內向二葉花紋魚尾로 고정됨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에 간행된 대부분의 「中庸章句大全」이 명본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만, 후대로 갈수록 복각이 거듭되면서 명본의 형태와는 완전히 거리가 떨어진 판본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명본복각계열을 이루고 있는 판본들의 간행처에 대해서 살펴보면, 처음에 강원도 원주에서 복각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판식의 특징에 의거하여 16세기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판본이 2종이 있으며, 임진왜란 직후인 1612년에 함흥부에서 간행되었고, 17세기에 成均館과 北漢에서 개판되었으며, 그 후에 함경감영, 영변부, 경상감영 등에서 간행되었고, 19세기에 전주의

방각본 간행처인 하경룡본이 간행되었고, 1916년에 하경룡본의 후쇄본이 전주의 七書房 에서 간행되었다. 판본의 대부분이 지방관판본임을 알 수 있다.

## 4.2 活字本 系統

조선시대에 주성한 활자로 간행한 활자본과 활자본의 복각으로 이루어진 「中庸章句大全」 판본은 모두 12종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활자로 인출한 것은 7종이며, 나머지 5종은 활자본을 저본으로 후대에 복각한 목판본들이다. 활자로 간행되거나 혹은 그 활자본을 저본으로 후대에 복각된 「中庸章句大全」 판본들은 행자수가 초주갑인자와 무신자는 10행17자이며, 정유자는 10행18자, 후기운각인서체자는 10행20자, 그리고 훈련도감자는 10행22자이다. 또한 이들 활자본 및 그 복각본들은 내용상으로는 모두 명나라 호광 등이 편찬한 「四書五經大全」 가운데 하나인 「中庸章句大全」과 동일한데, 이는 조선에서 만든 활자로 찍었을 뿐 영락판 「中庸章句大全」을 底本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활자는 초주갑인자, 무신자, 정유자, 후기운각인서체자, 훈련도감자 등 모두 5종의 활자가 사용되었는데, 이 중에서 丁酉字本이 하나의 계통을 형성하고 있다. 계통을 이루고 있는 판본들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3> 活字本에서 系統을 이루고 있는 “中庸章句大全” 板本

| 板種의 系統 |       | 刊行年  | 刊行處   | 板式의 特徵 |           |       | 備考        |
|--------|-------|------|-------|--------|-----------|-------|-----------|
|        |       |      |       | 邊欄     | 半郭        | 行/字   |           |
| 原刊本    | 丁酉字   | 1793 | 校書館   | 單邊     | 24.8×17.0 | 10/18 | 癸丑新印      |
| 重刊本    | 丁酉字   | 1820 | 內閣    | 單邊     | 24.3×17.2 | 10/18 | 庚辰新刊      |
|        | 覆刻本   | 1828 | 慶尙監營  | 單邊     | 23.2×17.1 | 10/18 | 戊子新刊      |
|        | 覆刻本   | 1913 | 在田堂書鋪 | 單邊     | 22.3×17.0 | 10/18 | 戊子嶺營本의 後刷 |
|        | 의 後刷本 | 1918 | 匯東書館  | 單邊     | 24.3×17.1 | 10/18 | 內閣本 後刷    |

정유자본 「中庸章句大全」은 1793년에 교서관에서 처음 활자로 인쇄된 후

1820년에 內閣에서, 1828년에 경상감영에서 복각되었으며, 1918년에는 경성에 있는 회동서관에서 1820년에 내각에서 「中庸章句大全」을 간행할 때 사용했던 판을 이용하여 後刷本으로 간행하였고, 대구의 재전당서포에서는 '무자신간영영장판'(戊子新刊嶺營藏板)의 간기를 가진 嶺營本(1828년)의 판을 이용하여 後刷本을 간행하였다. 즉, 1793년에 간행된 정유자본을 저본으로 2번의 복각이 이루어졌으며, 그 복각본들의 후쇄본이 방각본 간행처에서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조선시대에 널리 유통되어 하나의 계통을 형성한 한문본 「中庸」 판본인 「中庸章句大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는 명본계통과 활자본계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명본복각본'들은 형태적으로 10행22자의 판식을 가지고 있으며, 복각이 거듭되면서, 구두점의 유무와 어미의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이 판본들은 임진왜란 이후에 간행된 지방관판본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경상감영에서 간행된 판본이 가장 많다. 활자로 간행되거나 혹은 그 활자본을 저본으로 후대에 복각된 「中庸章句大全」 판본은 내용상으로는 모두 명나라 호광 등이 편찬한 「四書五經大全」 가운데 하나인 「中庸章句大全」과 동일한데, 이 중에서 정유자본이 계열을 형성하고 있다.

## 5. 結 論

이상으로 이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한문본 「中庸」의 제판본을 대상으로, 간행시기별 분석과 간행지역별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그리고 가장 많은 종수가 간행된 「中庸章句大全」의 판본의 형태적 특징을 분석하여 그 판본의 형성계통을 밝혀 보았다. 그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사실이 연구되었다.

1) 책판목록의 기록에 의하면 한문본 「中庸」은 총 25개 지역에서 모두 5종의 책판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임진왜란 이전에도 많은 지역에서 상당수의 「中庸」 책판을 소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책판목록상의 기록으로는 호남과 영남지역이 가장 많은 곳에서 「中庸」 책판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조사한 결과 실물은 경기지역과 영남지역에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2) 현존하는 漢文本 「中庸」은 서명별로 「中庸」, 「中庸章句」, 「中庸章句大全」, 「中庸奎壁」, 「中庸大文」, 「庸學大文」, 「庸學正文」, 「三經四書正文」 등 8종이 현존하고 있으며, 동일 서명 하에서도 판본이 다른 것들을 구분하면 총 48종이 현존하고 있다. 현존하는 한문본 「中庸」 판본의 간행지역을 경기지역, 영남지역, 호남지역, 북한지역 및 기타지역으로 구분하였는데, 경기지역과 영남지역은 다른 지역들에 비해 월등하게 中庸 판본이 많이 간행되었다. 경기지역에서 간행된 판본의 대부분은 출판을 담당하던 중앙관서에서 인출되었고, 영남지역에서 간행된 판본은 주로 경상감영에서 간행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한문본 論語, 大學 판본과 비교해 볼 때, 「中庸」의 경우 호남지역과 북한 지역에서도 자주 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기별 구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현존하는 한문본 「中庸」 판본들은 주로 17, 18, 19세기에 간행된 것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는 論語와 大學 판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조선시대에 널리 유통되어 하나의 계통을 형성한 한문본 「中庸」 판본은 주희의 「中庸章句」를 저본으로 명나라 영락연간에 호광(胡廣) 등이 편찬한 「中庸章句大全」을 底本으로 간행된 판본들이다. 이는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종수를 가지고 있는 판본으로서, 크게 明本系統, 活字本系統으로 구분되었다. 「명본복각본」들은 형태적으로 10행22자의 판식을 가지고 있으며, 복각이 거듭되면서, 구두점의 유무와 어미의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이 판본들은 임진왜란 이후에 간행된 지방관판본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경상감영에서 간행된 판본이 가장 많다. 활자로 간행되거나 혹은 그 활자본을 저본으로 후대에 복각된 「中庸章句大全」 판본은 내용상으로는 모두 명나라 호광 등이 편찬한 「四書五經大全」 가운데 하나인 「中庸章句大全」과 동일한데, 이 중에서 정유자본이 계열을 형성하고 있다.

4) 조사한 여러 판본들의 간기를 추정함에 있어서, 역사적 자료들을 보충하여 좀 더 정확성을 기해야 할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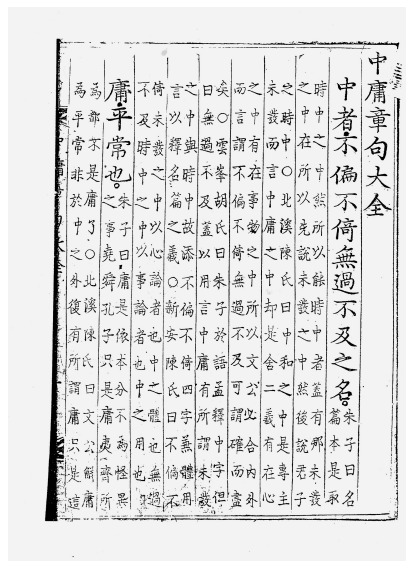
## <참고문헌>

### 1. 단행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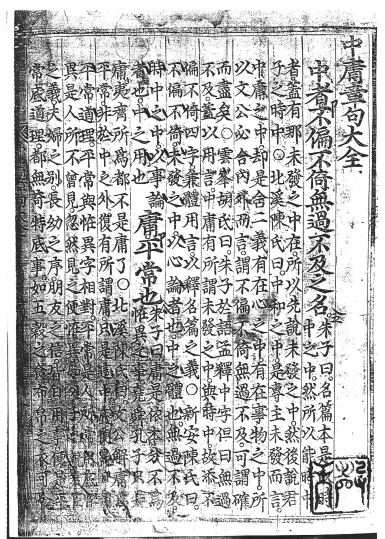
- 김두중. 「韓國古印刷技術史」. 서울: 탐구당, 1974.  
유탉일. 「嶺南地方 出版文化論攷」. 부산: 세종출판사, 2001.  
윤병태. 「한국의 책판목록」. 서울: 보경문화사, 1995.  
천혜봉. 「韓國典籍印刷史」. 서울: 범우사, 1990.

### 2. 논문

- 김치우. “嶺南冊板記 所載 刊本の 分類別 傾向.” 『書誌學研究』 제24집(2002).  
남권희. “濟州道 刊行의 書籍과 記錄類.” 『古印刷文化』 제8집(2001), 청주고인쇄박물관.  
남권희. “慶尙監營 刊行本과 樂育齋 所藏書冊 分析.” 『慶尙監營의 綜合的 研究』. 대구: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2004.  
송정숙. “韓國에서 「中庸章句」의 수용과 전개양상.” 『書誌學研究』 제10집(1994).  
안현주. “조선시대에 간행된 한문본 論語의 板本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24집(2002).  
안현주. “조선시대에 간행된 연해본 論語의 板本에 관한 연구.” 『書誌學研究』 제26집(2003).  
송일기·정왕근. “조선시대에 간행된 干支本 大學의 刊年推定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 제4호(2004).  
이혜경. “朝鮮朝 坊刻本の 書誌學的 研究.”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1999.  
정형우. “五經·四書大全의 輸入 및 그 刊行 廣布.” 『東方學志』 제63집(1989).  
조정화. “조선조 嶺南觀察營本에 관한 서지적 연구.” 『書誌學 研究』 제2집(1987).



<그림 1> 戊申字本 中庸章句大全



<그림 2> 成均館刊 中庸章句大全(庚戌年)